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BIM기술위원회 건축분과회의 회의록

회 의 명	BIM 기술위원회 건축분과회의
일 시	'25.05.27, (화) 15:00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7 (서울시 강남구)
참 석 자	리딩사 디엘이앤씨 담당 이상영, 팀장 유경재, 대리 배종윤 간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박승화, 빌딩스마트협회 이사 강병철, 팀장 최홍준 회원사 디에이건축 본부장 조태용(분과장) 뉴월드 대표 신재형, 대우건설 책임 백재연, 대우건설 팀장 홍성무, 대한경제 기자 손민기, 더부엔지니어링 팀장 김예진, 디에이건축 수석 정미식, 라인테크시스템 전무 박재호, 빔스온탑엔지니어링 대표 정혜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프로 양기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프로 윤종호, 상상진화 이사 김용덕, 서벙스 대표 신승원, 신세계건설 파트너 김선일, 신세계건설 파트너 이제진, 신테그레이트 컨설턴트 정재은, 에이앤유디자인그룹 이사 김용상,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파트장 진명재, 이가건축 이사 양만준, 이안 대리 신새봄, 이안 차장 윤상욱, 자이씨앤에이 책임 정석환, 자이에스앤디 전임 조선영, 자이에스앤디 전임 천예지, 정림건축 소장 김우진, 정림건축 소장 박민호,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이사 김지호, 창소프트 대표 김은석, 케이씨아이엠 팀장 정재형, 코스팩빔테크 이사 김정배, 코오롱글로벌 차장 조재근, 토문건축 본부장 윤종덕, 트윈빔건축 본부장 김민정, 파이브디워드 상무 허창근, 포스코에이앤씨 차장 김동욱, 포스코에이앤씨 부장 김승옥, 하우빌드 대표 이승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전두호, 행림건축 책임 김제민 (총 34개사, 45명 참석)
주요 내용	• 건축설계 BIM활용 현황 BIM은 건축설계실무와 충돌, 공모지침에서도 문제점이 발견, BIM관련 논문 발표도 감소 - BIM성과품 지위 개선 및 확보에 대한 의견 • 과업범위에 없던 추가업무 수행, 실질 감소된 설계비 •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려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현재 건축설계 분야에 대한 BIM적용 요구는 묘하게 어긋남 1. BIM적용지침 및 기준 개선이 필요 - BIM 지침은 초기, 국내 BIM 프로젝트 양적 증가라는 순기능으로 작동하였으나 개별공종 엔지니어에 의한 활용은 그렇지 않다. 2. BIM대가 기준 마련 필요

- 건축설계비와 BIM 설계비는 다른 항목인가
- 아웃소싱이 아닌 BIM 보편적 실무 활용을 위해선 다른 준비가 필요
- 효율에 의해 대가산정되는 건축설계에 BIM을 적용하면 실비정액가산식이 되어야 하는 모순 발생

3. 실질적 업무환경이 배제된 지침 개선

- BIM지침이 명기한 업무가 건축설계 업무범위 전체가 아님을 확인하고 건축설계 실무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순차적 개선 필요

4. 템플릿, 라이브러리도 중요하지만 관습과 기술에 대한 실질적 기준 미흡

- 단순히 템플릿과 라이브러리만 제공하는 게 아닌,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방법을 제시
- BIM적용을 통해 기존 도서에 대해 무조건적인 간소화와 경험하지 못한 기술 기준에 대한 보편 기준 수립과 공유 필요

5. 건설과정 참여자 관심 중요

- BIM적용 의무 프로젝트에서 지침과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동일한 평가를 받음

- 건축설계와 BIM에 대한 입장차이

- 건축설계 <BIM이 아니라 건축설계 >BIM이다.
- 건축설계자 입장에서 '도구'였던 BIM이 오히려 '지침'이 됨

• 건축분과 추진계획

- 건축설계 단계별 업무 세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대상 : BIM기술위원회, 건축분과 참여기업, 일반 건축설계사무소)
- 국내 BIM 관련 건축설계 지침 내용 분석(건축분과 자문위원회 협의)
- 건축설계사무소 업무세부사항과 지침간 비교분석(건축분과 자문위원회 검토)

• 건축분과 추후일정

- 5월 : 건축분과 및 자문위원 설문 내용 초안 배포
- 6월 1주 : 의견 청취
- 6월 2주 : 자문위원회 설문 문항에 대한 자문 회의
- 6월 말 : 설문 작성
- 7월 초 : 작성된 설문으로 배포전 자문회의
- 7월 : 설문 진행
- 8월 : 설문내용 분석
- 9월 : 설문분석 자문회의
- 10월 : 국내 BIM 관련 지침 분석 / 분석을 위한 자문회의

- 11월 : 설문과 국내 BIM 지침 비교 분석자료
- 12월 : 건축설계에 보편 BIM활용 확산을 위한 국내 BIM지침 방향 개선 제언 보고서 작성

• 기타 자유토론

Q1. BIM을 도구로만 보지 않고, 설계 시스템 전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설계사무소들은 왜 BIM을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며, 이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1. 국내는 설계사무소가 BIM을 자발적으로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 해외는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만, 국내는 도서 품질이 낮아도 크레임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BIM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업무 체계 전환의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적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Q2. 현재 발주처들이 BIM 도입 목적 없이 지침만 따라 업무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A2. 설계자뿐 아니라 발주처의 목적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현행 지침은 도구 중심이고 실무자가 이해하거나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건의안에는 '프로세스 중심 재구성', '불필요한 작업과 데이터 요구 제거', '계약 기반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자문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Q3.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건축 주무관 등)에 대한 BIM 이해도 부족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은?

A3. 공공기관만이 아닌 인허가권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설계사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건축 분과라는 익명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으니 다양한 접근 방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

Q4. 과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너무 많은 목표를 한 번에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인 결과가 부족했는데, 이번년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A4. 이번에는 설계 파트에 집중하여 범위를 줄이고,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연말까지 설문조사, 지침 분석,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해당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시공 파트에 집중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Q5. 건축분과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는 향후 어떻게 활용되며, 참여자들과의 공유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A5. 설문 결과 분석 이후에는 별도 세미나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참여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목소리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Q6. 정책간담회에 제출한 안건은 어떤 것이며, 정부 측 반응은 어떤가? A6. 정책간담회에 제출한 안건은 “과도한 작업 요구”, “성과 중심 지침”, “현실적 계약 기반 미비” 등에 대한 개선 요구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님과 소관부서 측에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혀 이전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	
사 진		